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소식지
치읓치읓

uris.chuncheon.go.kr

9 773092 059003 19
ISSN 3092-0590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2025 WINTER 치읓치읓 19 춘천 도시재생을 찬찬히 기록하다

치읓치읓19

2025 WINTER
춘천 도시재생을 찬찬히 기록하다



봉의산
비탈마을


세종호텔
강원도청
우물터
한림대학교
유봉여자 중·고등학교
동보빌라
커뮤니티돌봄센터
봉의산 마을창작소
봉네곡장
도시재생공유공간
춘천미술관
춘천시청별관
춘천향교

06

교동소양

작은 정원 조성부터 조경관리 교육까지
마을에 생기를 더하다

도심 속 작은정원
조경·관리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조경·관리사 실습교육

14

춘천시

Side B, 춘천

도시의 일상에 숨어있는
가치와 이야기를 재생(Play)합니다.



Side B

46

조운소양

공간이 들려주는 이야기, 거점시설을 읽다

조운소양 도시재생 거점시설 소개



조운웰컴센터 외부전경

52

#도시재생

청년의 시선으로 그린 도시의 미래

#도시재생 #청년인턴 #해커톤
#낭만강원 #낭만대추



낭만강(强)원

24

춘천시

시청광장에 차려진 도시재생 한상 차림!

제3회 춘천도시재생 페스타 〈조운미식회〉
현장 스케치



약사리 고추장 시식 체험

38

약사명동

주민이 운영하는 공간,
마을이 이어가는 도시재생

약사명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두 번째 이야기



집수리도서관

60

#도시재생

현장에서 배우는 도시의 변화,
천안으로 떠난 청년들의 답사기

#도시재생 #청년인턴 #선진지답사 #천안시



남산 근린 공원 모습

72

포토에세이

엔딩크레딧

장면 2025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No.168

작은정원 조성부터 조경관리 교육까지

마을에 생기를 더하다

도심 속 작은정원 조경·관리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 도심 속 작은 정원 조경·관리사 양성교육
- 교동소양 도시재생 커뮤니티돌봄센터, 거점시설 일대
- 2025. 10. 3. ~ 11. 1.
- 정원관리 교육을 통해 화단을 조성하여 작은 정원을 만들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쉼, 위로, 치유를 받는 마을 공유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글/사진 정임정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일상은 늘 분주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올해 교동·소양동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준비한
'도심 속 작은정원 조경·관리사
양성교육'은 마을에 화단을
조성하여 일상의 쉼터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교동·소양동
거점시설 일대에 꽃을 심고
화단을 가꾸며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돌보고 가꾸는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10월 교육의 시작, 강사님의 명랑하고
경쾌한 인사말로 교육이 시작됐다.
원래 계획은 15명이었지만, 교육을 나중에
알게 되어 뒤늦게 참여한 교육생도 있어서
18명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강사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생 한명 한명이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교육을
알차게 구성해 주셨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강사님의 20년이상
베테랑의 면모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정원 디자인의
기초부터 정원수목의 종류와 생리적 특성,
계절별 관리 방법, 병해·동해관리와 전정
기술까지 도시 속 작은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현장에서의 변화였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향교 옆 언덕길 화단,
커뮤니티 돌봄센터 앞과 주차장 주변의 경계식재,
창작소 주변의 작은 플랜터까지 교육생들은 직접
흙을 만지고, 잎을 다듬고, 가지를 솎는 실습을
통해 교동소양동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 화단에 새로운 초화류를
식재하며 '동네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었다.



수업때마다 강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하는
교육생이 있었는데, 배우고 집에서 복습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아직 열정이 많은 주민들이
많은데,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니. 사업이 종료되어도 교육과
사후관리는 계속 되었으면 한다.

요즘 교동소양 커뮤니티 돌봄센터에 올라갈 때마다 꽃밭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건물 주변에 주민들이 가꾼 화단들이 조성되어 있으니, 한층 밝아진 느낌이다. 역시 도시재생은 건물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의 정이 오가는 것이 도시재생임을 이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꿔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











마지막 수업 날, 교육이 진행되며 다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았다.
강사님이 화단, 주변 나무들을 보며 한 번씩 복습 차원에서 식재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다시 커뮤니티돌봄센터로 돌아와 교육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17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수료증을
받은 교육생들은 밝은 미소를 띄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나무 관리하는 방법에 매우 효과적인 교육이었다.” 등
교육생마다 각자의 마지막 소회를 밝히며,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이제 교동·소양동 도시재생은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마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곳곳의 화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연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작은 정원을 돌보던 손길이 앞으로는 더 넓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시재생의 목적은 결국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도심 속 작은 정원 조경·관리사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전문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을 서로에게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며
‘함께 살아가는 동네’를 만들었다.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25년 12월로 종료가
되지만, 마을의 화단을 조성하며 나눈, 마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 교동·소양동의
앞으로를 밝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

No.169

Side B, 춘천

도시의 일상에
숨어있는 가치와 이야기를
재생(Play)합니다



사 업 명 : 2025년 춘천도시재생 SNS 홍보단 〈스트리트리포터 2기〉
조운소양 도시재생지원센터, 교동소양 커뮤니티돌봄센터
사업기간 : 2025. 06. 09. ~ 12. 25.
홍보단 활동기간 : 2025. 07. 10. ~ 10. 31.
춘천도시재생 홍보단 운영, 역량강화교육, 도서 출판 및 전시

스트리트리포터, 우리의 미션은 도시재생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한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범위로 할 것'이었습니다. 좀 더 세세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혹여 생각을 가둘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 광범위함이 스트리트리포터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막연한 생각, 실체가 없는 상상, 처음 해보는 인터뷰에 대한 막막함 등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렴풋한 상황에서도 각자가 가진 강점과 개성이 뚜렷했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8번의 아카데미와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스트리트리포터는 태를 갖춰 나갔습니다.
출판기획서를 작성해보며 각자가 기록할 도시재생에
대해 고민했고, 결이 비슷한 리포터끼리 팀을 이루고
교류하며 방향을 좁혀나갔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12개의 기록은, 1기의 콘셉트였던 도시의 '재생(再生)'과 음반의 '재생(Play)'을 연결한 '도시재생 플레이리스트' 콘셉트를 유지한 채, 포크(Folk), 클래식(Classic), 재즈(Jazz) 트랙으로 나뉘어 담겼습니다. 포크(Folk) 트랙에는 오래된 골목과 슈퍼, 사라져가는 풍경 속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았고, 클래식(Classic) 트랙에는 춘천에서 피어난 예술가들의 영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즈(Jazz) 트랙에는 재즈의 즉흥적인 리듬처럼 일상에서 벗어난 여행자의 마음으로 춘천을 담았습니다. 또 트랙별 마지막 페이지에 큐레이션한 음원이 링크된 QR코드를 삽입하여, 기록의 감각이 텍스트로부터 청각적 상상까지 확장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개의 기록 앞뒤로 Liner Notes(음반 해설 글), Recording Notes(제작 배경), 스트리트리포터 소개 그리고 도시의 장면들을 엮어 완성했습니다.





책의 이름은 〈Side B〉입니다. Side A에 수록된 메인 트랙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되는 노래들처럼 도시의 일상에 숨어있는 가치와 이야기를 재생(play)한다는 뜻입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 7월,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관해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진짜 도시재생은 외형의 변화뿐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을 되살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스트리트리포터는 7월의 약속과 다짐을 기억하며, 도시재생을 물리적 변화의 관점이 아닌, 사람과 장소, 지속성에 무게를 두어 기록했습니다. 〈Side B〉. 이 책을 마주한 지금, 그간의 모호했던 인상, 상상, 생각들이 단단한 물성을 갖고 돌아온 듯해 가슴이 벅찹니다.

11월, 우리는 수료식과
북토크를 마지막으로
해단했습니다. 위촉식 때에도
힘찬 응원을 보내주셨던
육동한 시장님께서 이번에도
수료증 수여와 함께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북토크에서는
스트리트리포터의 취재
뒷이야기와 그동안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가자 이야기는 자연스레
이 도시에 대한 찬가로
이어졌습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의 애정을 쏟는지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스트리트리포터가
북토크에서 들려준 찬가는,
그 자체로 Side B, 숨은
명곡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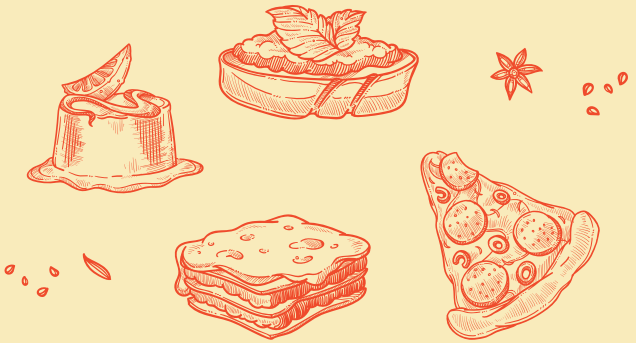
〈Side B〉는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활동한 열두 명의
스트리트리포터와, 키맨(Key-man)으로 역할 한 소양하다에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No.170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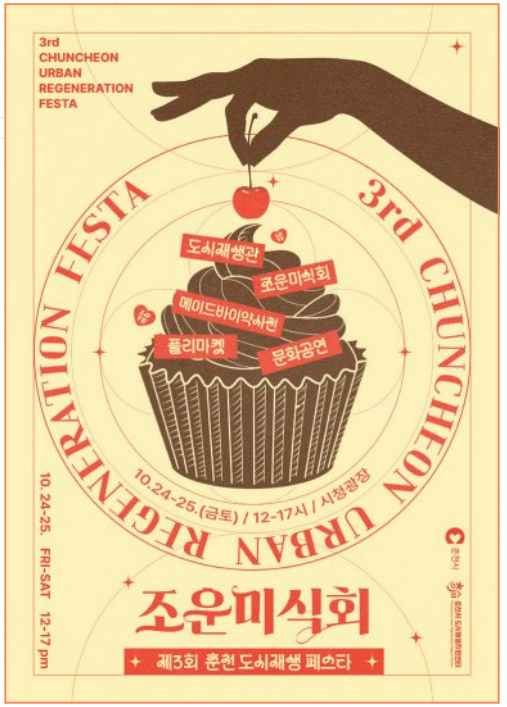
<조운미식회> 현장 스케치

시청광장에 차려진 도시재생 한상 차림!



-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부제: 조운미식회〉
- 춘천시청 광장
- 2025. 10. 24.~25.(금, 토) 12:00-17:00
- 도시재생 홍보·체험관, 조운미식회, 로컬스토어, 플리마켓, 공연 등

글 이경은 사진 옥돌기획, 소양하다



시청광장에 풍요로운 가을 식탁처럼 원도심의 맛과 즐거움이 풍성하게 차려진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페스타는 '원도심 먹거리 조명'에 집중했습니다. 조운동 먹거리를 새롭게 구성해 선보이는 '조운미식회'가 메인 이벤트로 자리했고,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고심해서 개발하고 있는 '약사장'과 '풍물커피'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를 그린 '도시재생 전시관'과 춘천의 금손들이 함께한 'Made by 약사천 팝업스토어', 축제의 밀도를 높이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술 공연까지, 이틀간 다채로운 이벤트로 시청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조운미식회

‘조운미식회’는 조운동 도시재생 권역 먹거리를 4가지 코스 요리로 선보이는 미식 연회였습니다. 조운동 요식업 상가 17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320명의 시민시식단이 함께했습니다. 미식 코스는 미식 전문가인 이형우 교수(한림성심대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박병렬 강사(중정헌 평생교육원), 박익수 총지배인(태백 라마다 호텔)의 컨설팅과 자문을 더해 완성했습니다.









사전 점검을 위한 방문컨설팅 현장과 시민시식단 참여 모습



A 코스

1. 봄내베이킹 ‘플라워 컵케이크’
2. 저스트피자 ‘콤비네이션’
3. 춘천우미닭갈비 ‘닭갈비’
4. 콘스델리 ‘쿠바 샌드위치’
5. 하비커피 ‘핸드드립커피’

B 코스

1. 골목집 ‘모듬전’
2. 열두달 평양 손만두 ‘손만둣국’
3. 유일관 ‘한우불고기’
4. 독일제과 ‘호두파이’
5. 은하수커피 ‘바닐라라테’

C 코스

1. 조선땡초우동 ‘떡순김 세트’
2. 새미골추어탕 ‘추어탕’
3. 요거샌드 ‘게살하와이안샌드위치’
4. 요거샌드 ‘아메리카노’

D 코스

1. 훗 ‘바나나푸딩’
2. 육림닭강정 ‘조청닭강정’
3. 려블랙 ‘깐풍육새’
4. 본설렁탕 ‘한우사골설렁탕’
5. 훗 ‘오렌지라테’

320명의 시민시식단은 시청광장에 차려진 미식 연회장에서 4가지 코스 중 한 가지 코스를 선택하여 시식했고, 솔직한 시식평과 원도심 상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음식의 맛, 신선도, 코스 구성(다양성), 서비스 등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점 중·후반대를 기록했고, 시식단의 재참여 의향도 89%에 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려 10%, 미참여 1%)



봄내베이킹 '플라워컵케이크'



저스트피자의 '콤비네이션 피자'



춘천 토박이지만 조운동은 자주 안 와서 이런 맛집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숨은 맛집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스마다 메뉴가 다른 것도 이색적이었습니다. 다음엔 코스별 사장님들이 메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운미식회 A코스 시민시식단

언제나 찾아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는 이웃 같은 식당들입니다. 앞으로도 사랑 많이 받으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맛집 되시기를 바랍니다.

- 조운미식회 C코스 시민시식단

제3회 춘천도시재생페스타
도시재생 홍보관'Side B, 춘천'



도시재생 홍보관 'Side B, 춘천'

도시재생 홍보관에서는 숨은 명곡처럼 오래오래 기억될 원도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시 속 빛나는 '사람들', 우리를 연결하는 '공간', 터를 갈고 닦는 '도시 정비', 견고한 '공동체', 도시에서 피어난 '영감', 도시를 살리는 일 '도시재생' 이렇게 6개의 주제로 한 해 동안 도시재생 권역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춘천의 숨은 명곡 같은 장소들을 떠올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겨보는 '도시 기록 프로그램'도 함께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문장으로 담아내는 경험은 익숙했던 도시도 더 특별하게 다가오게 했습니다.

제3회 훈헌도시재생페스타

도시재생 체험관









도시재생 체험관에서는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특별한 먹거리 체험과 조운동 상상언더그라운드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칠보공예 체험을 운영했습니다.



도시재생 체험 프로그램: 풍물커피 핸드드립백 만들기

먼저 **'풍물커피'**체험은 아바야 게이샤, 블루드래곤, 콜롬비아 메데진이라는 고급 생두를 직접 핸드로스팅하고, 실링기로 밀봉하여 나만의 드립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덕분에 체험관 부스 주위에는 행사 내내 감미로운 커피 향이 함께했습니다.





도시재생 체험 프로그램: 약사리 고추장

두 번째는 100% 국산 재료에 돼지감자 발효액으로 맛을 낸 **'약사리 고추장'** 체험이었습니다. 주민과 함께 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된 채소에 고추장을 듬뿍 찍어 시식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작은 용기에 고추장을 담아가는 체험이었습니다.





도시재생 체험 프로그램: 칠보공예

세 번째는 **'칠보공예'** 체험이었습니다. 머리핀, 도어벨, 그립톡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고, 칠보공예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 높은, 나만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도시재생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었던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No.171

주민이 운영하는 공간, 마을이 이어가는 도시재생

약사명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두 번째 이야기

- 약사명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 약사명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3개소
-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에 대한 주민 주도 관리운영 체계 구축



글 이지나 사진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민이 주체가 되는 약사명동의 변화

도시재생의 성과를 잇는 새로운 운영 주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약사명동의 중심에는 도시재생의 성과로 만들어진 세 개의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수공업팩토리, 집수리도서관, 어린이작업실. 이 공간들은 주민들의 일상 속 창작과 협력, 그리고 배움의 장으로 자리 잡으며 약사명동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시설은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약사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이어가려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온 변화를 주민의 손으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관리위탁은 도시재생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주민 자치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행정이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조합이 주체가 되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진짜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죠.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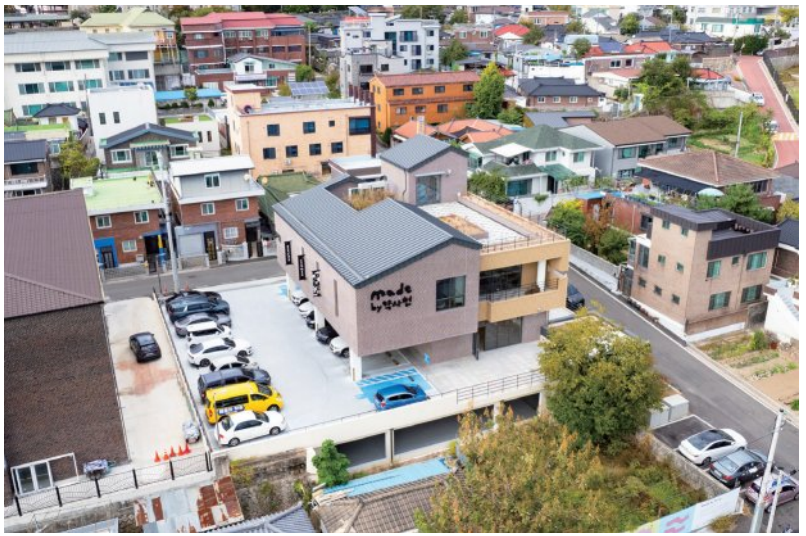
약사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3년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조합입니다.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함께 추진하며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이 조합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사진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모두 약사명동에 주인의식을 가지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마을을 지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은 약 2년간 3개의 거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단순한 시설 유지가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 활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거점시설 세 곳의 새로운 이야기

1



수공업팩토리

(약사고개길 41번길 12)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1,260㎡ 규모로, 굿즈 제작, 특화먹거리 개발, 전시와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약사명동의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핵심 공간입니다. 앞으로 마을조합은 이곳을 주민과 청년 창작자가 함께 협업하는 열린 제작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집수리도서관

(약사고개길 41번길 5-12)



지상 3층 규모의 360㎡ 공간으로, 목공 교육과 집수리 프로그램, 공구 대여소 등이 운영됩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 기술을 배우며 스스로의 공간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마을조합은 이곳을 통해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는 생활 기술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거점시설 세 곳의 새로운 이야기

3



어린이작업실

(춘천로 145번길 18)



지상 1층 115㎡ 규모의 공간으로, 어린이 돌봄과 가족 커뮤니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돌봄과 여러 체험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는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을 속 따뜻한 공동육아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도시





이번 위탁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도시재생이 주민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직접 그 변화를 만들어온 주민 단체가 운영을 맡음으로써, 도시재생의 목적과 철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행정은 지원과 협력의 역할을, 마을조합은 실질적인 운영과 기획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약사명동 주민들이 스스로 공간을 운영하고,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실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손으로 이어가는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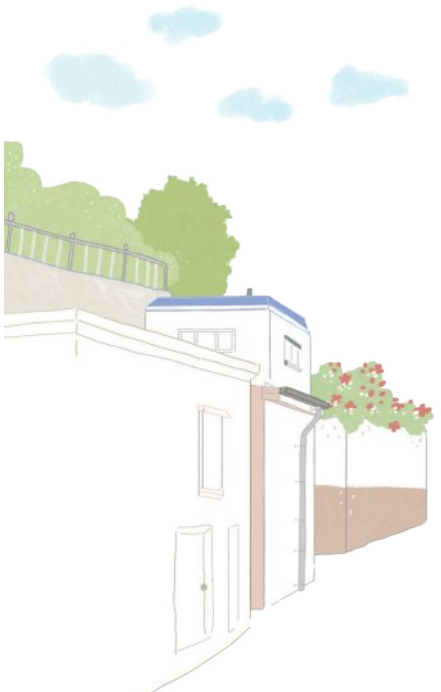
약사명동의 도시재생은 '공간의 변화'에서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이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도시재생은 사업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수공업팩토리의 작업소리,
집수리도서관의 나무 냄새,
어린이작업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마을. 그 속에서 주민들은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스스로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사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이 본격화되면, 이 세 공간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약사명동의 변화가 계속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진짜 완성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가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 본 기사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새로운 확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172

공간이 들려주는 이야기

거점시설을 읽다

지하도상가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운웰컴센터

글 성현아 사진 스트리트 리포터 이혜진 리포터





도시를 되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시재생은 공간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만의 고유한 색을 되찾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셔터가 내려져 있던 조운동의 오래된 상가와 골목에 다시 숨을 불어넣기 위한 고민은 결국, '문화'라는 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은 '문화가 숨 쉬는 조운동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세대와 장소를 잇고 지역의 이야기를 새로운 활력으로 바꾸는 다양한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과 예술가가 만나고, 창작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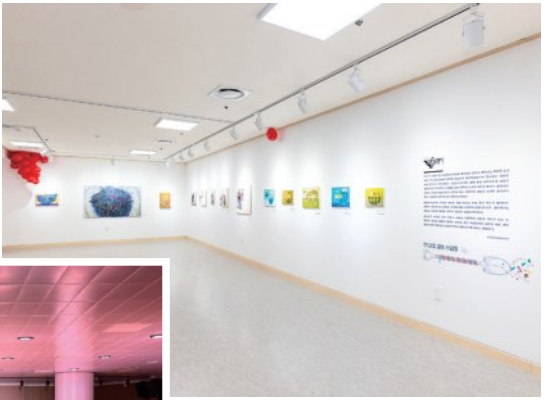
상상언더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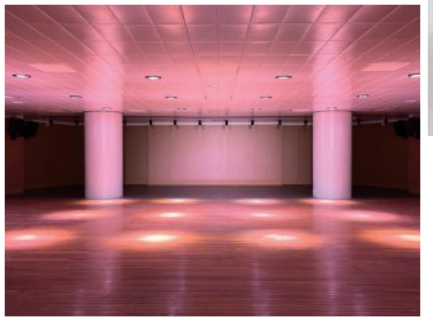




“꿈을 키워나가는 비밀공간”

텅 비어 어둡던 지하도상가 끝 상가들. 한때 공실률이 20%를 넘고 발길이 끊겼던 이 공간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상상언더그라운드로 태어났습니다.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댄스·밴드·연극 연습실이 지하도상가 중앙로 구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땀과 음악, 환한 웃음으로 가득한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연장은 소규모 공연에 최적화되어, 전문 예술 단체는 물론 아마추어, 동아리 등 누구나 무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실제 무대 조명과 음향이 구비되어 있어,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과 시민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첫’ 공연이 열리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상상언더그라운드는 조운동의 문화적 활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곳”

상상언더그라운드 남부로 구역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 상상언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술인 작업실은 그림,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입점해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작업실을 거닐며 자연스럽게 예술가와 소통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창작 워크숍, 성인 대상 미술 클래스 등 세대 간 문화 경험을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갤러리 상상언더는 신진 작가 개인전, 공동체 기록 전시, 주민 참여 전시 등의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공간입니다. 무료 대관이 가능해 누구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전시 중 작가와의 대화나 워크숍을 통해 방문객이 관람을 넘어 참여하고 경험하는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운웰컴센터





"이웃과 이야기가 만나는 곳"

조운웰컴센터는 요선동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과 지역 문화를 이어주는 거점 시설입니다. 지하 1층 마을극장에서는 연극, 음악 공연, 낭독회,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2층 커뮤니티룸은 주민 모임, 소규모 회의,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하며 '마을 거점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층 전시·문화 공간은 주민과 창작자가 작품을 선보이는 참여형 공간으로, 조운동의 이야기를 담는 또 하나의 장이 됩니다.

조운웰컴센터의 모든 공간은 무료 대관이 가능하며, 주민 주도의 문화 활동과 도시재생을 활발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 하나, 전시 한 번, 공연 한 편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운동의 거점시설들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서로 연결되는'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과 주민, 예술가가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활기와 예술적 에너지는 도시재생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함께 살아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운동 골목마다 이어지는 이야기와 경험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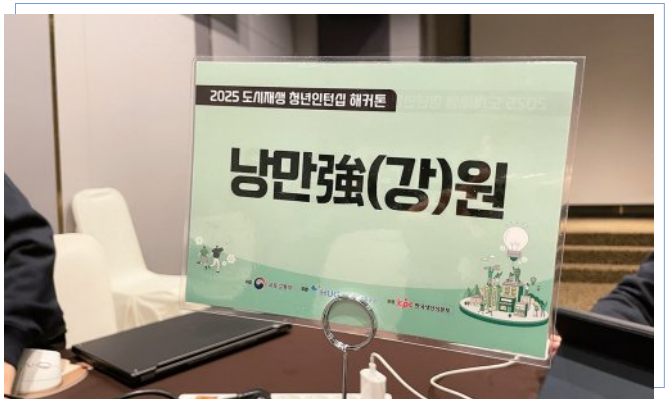
No.173

도시의 미래

청년의 시선으로 그린



글/사진 이지원



지난 10월 31일에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진행된 '2025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해커톤'은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의 내일을 함께 설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해커톤은 단순한 아이디어 경연을 넘어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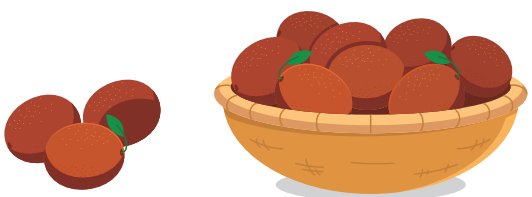
저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인턴으로서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인턴과 원주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턴분들과 함께 '낭만강(强)원'이라는 팀을 꾸려 약 두 달간 해커톤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팀명에는 '낭만'과 '강원'의 정체성을 아우르며 지역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강인한 힘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짧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 저희 팀은 지역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집하며 도시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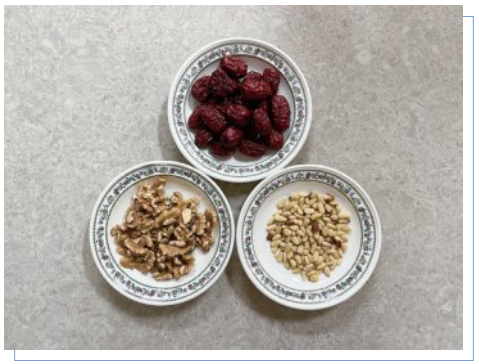
저희 팀은 도시의 쇠퇴를 단순히 공간의 노후화나 물리적 환경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침체는 인구의 이동, 생활 동선의 단절, 산업 구조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주 만낭포 동화역 폐역 일대를 대상지로 삼아 도심 쇠퇴의 원인과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QGIS를 활용해 인구 유출과 생활 SOC 접근성을 시각화하고 보행 동선과 유휴부지를 겹쳐보며 지역 내 기능 단절의 양상을 도출했습니다. 현장 답사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서는 수치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의 맥락과 정서를 읽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상지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대추나무'라는 자연적 자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대추는 과거부터 마을에 자리하던 상징이자 오늘날에도 지역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매개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로컬 창업과 커뮤니티 회복을 연계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단순한 재생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과 소비 구조가 선순환하는 '동화마을 로컬 창업 연계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한 것입니다. F&B 브랜드로서의 '낭만대추'를 중심에 두고 제품 생산, 판매, 체험을 결합한 복합 공간 운영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더 나아가 창업 인큐베이팅 구조와 수익성 분석까지 진행하며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커톤 발표 전날에는 심사위원분들께 직접 프로젝트의 스토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팀원들과 함께 대추 타르트, 대추 정과, 대추 크림치즈말이 등의 시제품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식용이 아니라 저희가 제안한 지역 브랜드의 철학을 맛과 향으로 구현한 하나의 콘텐츠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준비 과정은 도시재생을 이론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체화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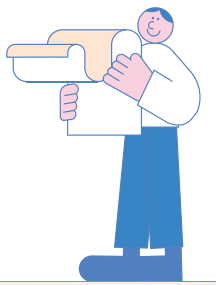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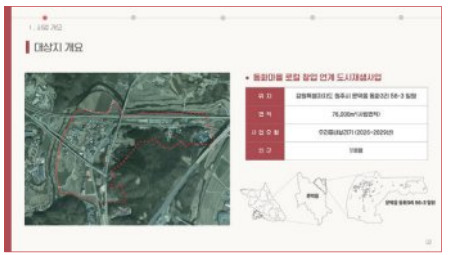


발표를 앞둔 해커톤 현장은 뜨거운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팀은 밤늦도록 토론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자료를 점검하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저희 '낭만강(强)원' 팀 역시 노트북 불빛 아래에서 도시의 미래를 그리며 끝없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문장, 한 장의 슬라이드에도 팀의 진심을 담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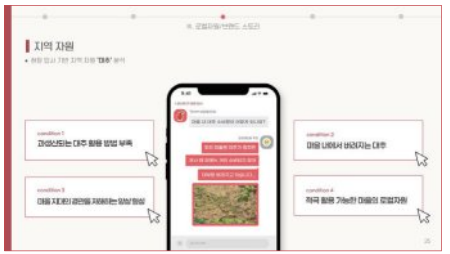
발표를 맡게 된 저는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손에 땀이 배일 만큼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두 달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도시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닌 쇠퇴한 도시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가능성과 빛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대상지의 문제를 진단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지역 순환 모델을 제안한다'는 흐름으로 구성됐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가진 지역 상생 구조와 창업의 선순환 가능성을 설명하며, 대추라는 자원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시선이 모니터와 발표자에게 교차할 때마다 그간의 노력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다른 팀들의 제안 역시 저마다의 지역색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기술, 공동체 재생, 문화거점 조성 등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며 도시재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는 경쟁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록 최종 수상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저희 팀의 노력과 여정은 무엇보다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직접 분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설계한 한 도시의 비전은 어떤 상보다 값지고 오래 남을 경험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결국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커톤은 저희에게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틔워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은 낡은 건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대상지의 문제는 어느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강원도와 더 넓게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으로서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고 직접 제안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번 경험이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 위에서 도시와 사람을 잇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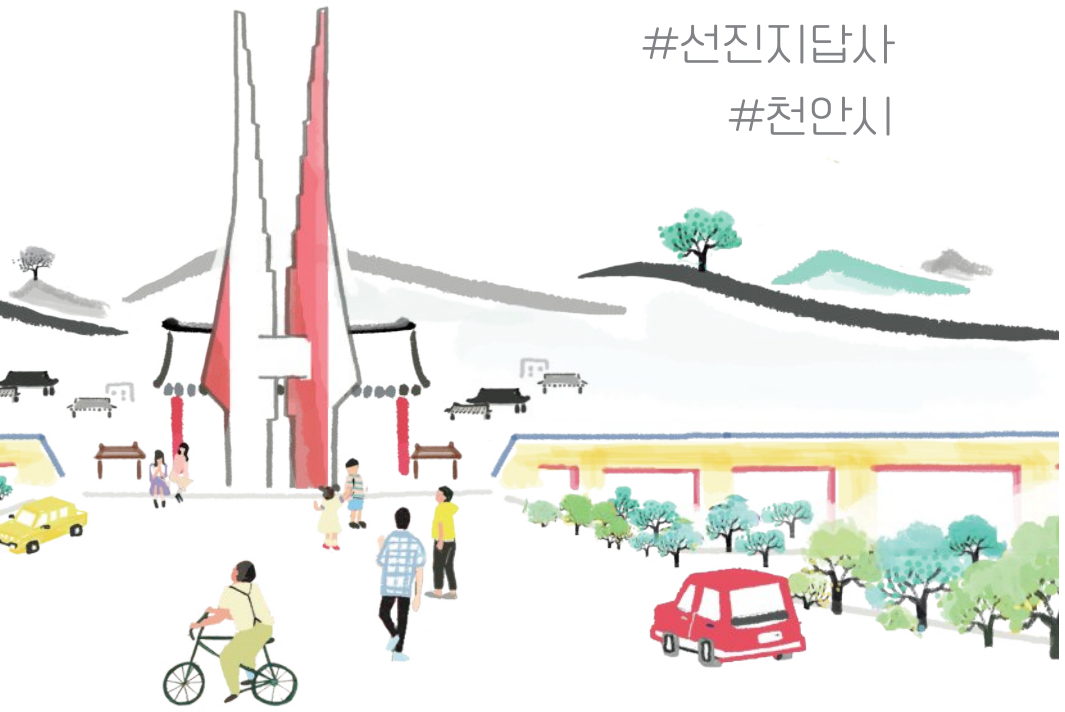
글/사진 이지원

No.174

현장에서 배우는 도시의 변화,

천안으로 떠난 청년들의 답사기

#도시재생
#청년인턴
#선진지답사
#천안시





천안시 도시창조 두드림센터

도시의 변화는 설계도 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끝과 일상 속에서, 그리고 지역의 기억을 지켜내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2025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참가자들은 이러한 도시의 흐름을 직접 느끼고 배우기 위해 천안시를 찾았습니다.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 특강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특강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특강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활력 재창출'을 목표로 추진된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선도지역과 중심시가지형,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특화재생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도시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마을 찻집 '남산의 봄'

이어진 충남콘텐츠코리아랩과 남산지구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문화와 공간이 만나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도시재생과 성공적으로 연계한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의 사례는 도시재생이 산업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천안에서의 하루는 도시의 재생이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닌 사람과 지역이 함께 써 내려가는 새로운 이야기임을 깨닫게 해주는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남산지구 현장센터 지역사 박물관

먼저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의 특강은 도시재생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활력 재창출'을 목표로 추진된 다양한 사업 유형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재생이 행정 주도의 사업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민관협력형 리츠사업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한 사례는 인상 깊었습니다.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결국 도시재생의 성공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시설 투어

다음으로 방문한 충남 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도시재생이 문화산업과 결합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또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충청권 내에서 유일하게 콘텐츠코리아랩과 음악창작소를 함께 유치한 공간으로 지역 청년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곳곳에는 음악,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장비가 배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 아티스트와 청년 창작자들이 협업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을 공간 재편의 관점으로만 바라봤던 저희에게 이곳은 '사람과 산업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생생히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은 낡은 건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가능성을 다시 짜 맞추는 창조적 과정이라는 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산 근린 공원 모습

마지막으로 찾은 남산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천안의 오래된 원도심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남산지구는 오랜 역사와 지역의 기억을 품은 곳으로 '고령친화 마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 박물관과 주민 커뮤니티 거점, 녹지축 공원, 어르신 복지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며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함께 돌보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분들이 스스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분께서 "도시재생의 완성은 건축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망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남산 근린 공원 투어 모습

짧은 답사였지만 한 장의 보고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한때 낡음으로 여겨졌던 공간이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의지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며 도시재생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이 도시를 바꾸고, 도시는 다시 사람을 바꾼다는 순환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천안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도시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유기체이며 그 성장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깊이 느꼈습니다.

이 배움이 저희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고 미래의 도시재생 현장에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씨앗이 되길 희망합니다.

맛과 원도심이 만난다, 제3회 춘천도시재생페스타

- ☑ **춘천시, 제3회 도시재생페스타 24~25일 시청광장에서 개최**
-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4코스 미식연회 '조운미식회' 첫 선**
- ☑ **시민시식단 160명 조기마감, 행사 당일 현장모집도**
- ☑ **도시재생전시, 체험, 마켓, 공연 등 프로그램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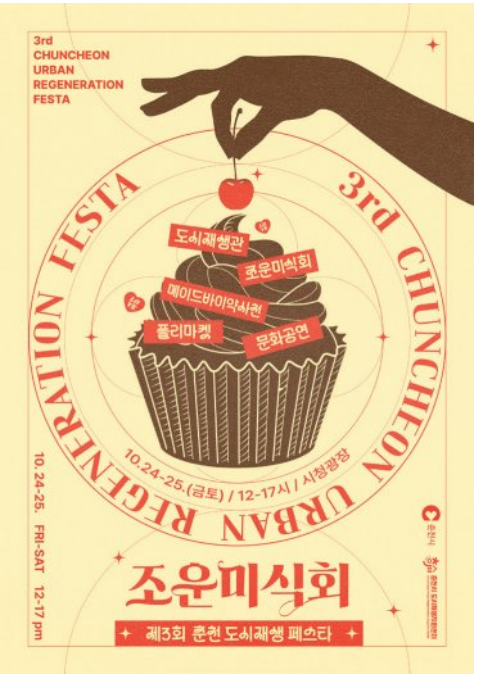
춘천 조운동 일원의 맛과 이야기를 한데 모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장이 펼쳐진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오는 24~25일 이틀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제3회 춘천도시재생페스타(부제: 조운미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상인, 주민, 작가, 예술가 등이 참여해 도시재생 현장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조운동 도시재생권역 상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미식연회 '조운미식회'다. 조운미식회는 새명동, 요선동 요식업 17개 상가의 대표 메뉴를 4가지 코스 요리로 구성해 시민 시식단에게 제공하고 시식단은 솔직한 시식평과 별점을 매긴다.

시민시식단은 온라인을 통해 160명을 사전 모집한 가운데 조기마감됐으며 행사 당일에도 1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민단은 4가지 코스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시식할 수 있다.

코스 개발은 미식전문가 한림성심대 이형우 바리스타제과제빵과 교수와 박병렬 중정헌 평생교육원 강사, 박익수 태백 라마다호텔 총지배인의 방문 컨설팅과 자문을 더해 완성도를 높인다.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도 시민을 맞이한다. 도시재생의 가치와 춘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도시재생전시'를 비롯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도시재생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약사천 일대의 고유한 매력과 라이프스타일을 브랜딩한 'made by 약사천' 팝업스토어도 운영된다. 플리마켓, 문화예술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더해져 원도심의 가을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도시재생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춘천시민이 기록한 도시의 뒷면 …12일 'Side B' 북토크

☑ **'스트리트리포터 2기', 4개월 취재 기록집 발간·수료식 개최**
☑ **도시재생 현장의 이야기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
☑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

도시재생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취재하고 기록한 도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2일 교동소양 커뮤니티 돌봄센터에서 '춘천도시재생 SNS홍보단 스트리트리포터 2기 수료식 및 'Side B' 북토크' 행사를 개최한다.

'스트리트리포터'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취재하고 기록해 책으로 엮는 시민참여형 도시기록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7월 스트리트리포터 2기가 출범한 가운데 1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4개월 동안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도시재생 현장을 취재했다.

이들이 춘천 도시재생 지역을 직접 발로뛰며 취재한 기록집은 도서 'Side B'로 발간됐다. 'Side B'는 음반의 뒷면 트랙을 뜻하는 용어로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되는 곡들처럼 도시 일상 속 숨은 가치와 이야기를 재생(PLAY)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수료식과 이후 열리는 북토크에서는 스트리트리포터의 취재 뒷이야기와 기록 과정의 고민, 도시재생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려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도시재생과 지역 이야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Side B'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도시재생의 이야기"라며 "이번 행사가 시민이 함께 도시재생의 의미를 나누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면 2025





약사명동 조형 예술 활동 치유 프로그램
— 흙, 우리를 담다











약사명동 특화먹거리 개발 및 상품화
— 약사리 장(된장, 고추장, 간장)

약사명동 핸드로스터 & 브랜드 개발
— 풍물 커피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 혁신 산업박람회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











약사명동 교육 프로그램
— 2025 집수리아카데미

약사명동 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 스마트 크리에이터

교동소양 주민역량강화
2025 상반기 주민 건강리더 발굴









조운소양 시청광장 문화활성화
— 틈새콘서트 시즌 4

조운소양 청소년 문화교육
— 상상 아카데미







지하상가 소규모 문화공연
— 상상 한 여름 '밖은 덥고 여긴 쿨하다!'











제3회 춘천도시재생페스타
— 조운미식회

춘천도시재생 SNS 홍보단
— 스트리트리포터 2기





교동소양 도시재생 거점시설
화단 정비·조성 사업









조운소양 시청광장 문화활성화
— 틈새콘서트 시즌 5

조운소양 소식지
— 조운동네 좋은소식

춘천도시재생 소식지
— 치읓치읓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19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인스타그램〈춘천도시재생〉
https://www.instagram.com/uris_chuncheon/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카페〈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인스타그램〈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페이스북〈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인스타그램〈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instagram.com/vital_village_
페이스북〈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인스타그램〈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블로그〈조운동네〉
https://blog.naver.com/joundongne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소식지
치읓치읓

uris.chuncheon.go.kr

발행호 19호
발행일 2025. 12. 10.
창간일 2020. 10. 01.
발행인 신현만
편집자 노미영 이경은 성현아 정임정 이지나
기고자 이지원
디자인 내일기획
일러스트 콩줄리(@jyujyu_kong)
인쇄 내일기획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별관동 3층
033-245-5264
uris.chuncheon.go.kr

협조 춘천시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